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적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8편

Jeff Pippenger
2025-12-09

숫자 8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겠는가? 젓을 댄 자들, 젓가슴에서 떠난 자들이로다.

교훈 위에 교훈, 교훈 위에 교훈; 줄 위에 줄, 줄 위에 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는 더듬거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를 쉬게 할 안식이며, 이것이 새롭게 함이다' 하셨으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명령에 명령을, 명령에 명령을; 구절에 구절을, 구절에 구절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울무에 걸려 잡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비웃는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는 계약을 맺었으니, 넘쳐흐르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어 기초를 삼노니, 곧 시험된 돌, 귀한 모퉁잇돌, 견고한 기초라.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공법을 축줄로, 의를 다림추로 삼을 것이요,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리며, 물들이 숨는 곳을 넘치게 하리라. 너희의 사망과의 언약이 폐하여지고, 지옥과의 계약이 서지 못하리니, 넘쳐흐르는 채찍이 지나갈 때 너희가 그것에 짓밟히리라. 이사야 28:9-18.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이사야는 몇 절 앞에서 그들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과 '교만의 면류관'이라고 지목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그 기별이 술 취한 사람들에 의해 선포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대답했다. 늦은 비의 시기는 참된 늦은 비의 기별과 거짓 늦은 비의 기별과 관련된 때이다. 주께로부터 온 기별은 항상 두 부류의 예배자를 낳으며, 그 두 부류 모두 포도주를 마신다. 요엘서에서 신실하지 않은 자들의 입에서 끊어진 것은 성별된 기별, 곧 성별된 포도주이다.

술 취한 자들아, 깨어 올라;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새 포도주 때문에 울부짖어라;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요엘 1:5.

요엘서 1장에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곧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은 '새 포도주'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음'과 관련하여 정죄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술 취한 농부들에게서 '소제와 전제'로 상징되는 늦은 비의 성령의 부어 주심을 끊거나 보류하셨다.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고, 여호와와 그의 사역자인 제사장들이 애곡하도다. 밭이 황폐하고 땅이 애통하나니, 곡식이 망하였음이라.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쇠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밀과 보리로 인하여 울부짖으라. 밭의 수확이 망하였음이라. 포도나무가 말랐고 무화과나무가 쇠하였으며,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나무, 곧 들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쁨이 사라졌음이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슬피 올라.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라. 나의 하나님의 봉사자들아, 와서 굶은 배를 입고 밤새도록 누워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소제와 전제가 그쳤음이라. 금식을 성별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와 그의 날이 가까웠나니, 전능자에게서 오는 멸망같이 이를 것임이다. 우리의 눈앞에서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정녕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요엘 1:9-16.

이사야서의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이 요엘서에서 "깨어날" 때, 그들이 깨어나 맛닥뜨리는 것은 "새 포도주"로 상징되는 늦은 비의 기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 그 구절의 "corn"은 곡물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떡인데 그 구절에서는 그것이 "허비되었다."

"새 포도주"는 9/11에 도래한 현재의 진리 메시지이다. "새 포도주가 말랐다"와 "새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사실은 예레미야의 "옛" 길들로 돌아가는 자들만이 알아본다. 이는 "새로운" 메시지는 언제나 "오래된" 메시지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말랐다"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부끄러워하다"를 뜻한다.

'수치를 당하는' 자들은 요엘과 선지자들의 주요한 주제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흔히 '평안과 안전'의 메시지라고 불리는 자기들의 거짓된 늦은 비 메시지를 부끄러워한다.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이라는 세 가지 상징은 늦은 비의 메시지를 나타낸다. 늦은 비는 또한 성령의 부어 주심으로도 표현된다.

성령의 사역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되, 바로 그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책망하며, "곡식"으로 상징된다. "새 포도주"를 소유한 것이 성령을 소유한 자들을 식별해 준다. 성령은 "비"로도 또한 "포도주"로도 상징되는데, "비"와 "포도주"는 모두 메시지 또는 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시리라. 그러나 그가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들은 것을 말하며 너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7-13.

요엘의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의"는 "새"(현재 진리) "포도주"(메시지)로 표현된 현재 진리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인간성을 신성과 연결한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기름"은 "심판"의 상징이다. 이는 "심판"이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기름"이 있는지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요엘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깨우침이다. 늦은 비의 부어주심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에 속한 모든 요소들이, 요엘이 그들에게 "깨어라!"고 명하는 9/11부터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를 시험할 진리들을 이룬다.

늦은비 기별의 세 가지 상징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상응하며, "농부들"은 "부끄러워하라" 하고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은 "울부짖으라"고 한다.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며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되리라. 내 백성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엘 2:27.

농부들과 포도원지기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거짓 '늦은비' 기별이 그들이 가꾸라고 맡겨진 포도원에서 생명을 낳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울부짖는다. 재림교회는 그들의 여선지자를 통해 자신들이 늦은비의 체험을 성취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알고 있지만, 들의 소산은 시들어 버렸다. 그들은 특히 "밀과 보리"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며 울부짖는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드러진 "보리" 첫 열매 제물이 오순절기를 시작했으며, 그 오순절기는 오순절에 드러진 "밀" 첫 열매 제물로 끝났다. 에브라임의 슬취한 자들은 늦은비가 내리는 때인 9/11부터 일요일법령까지 반복되는 오순절기의 잘못된 편에서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

"많은 이들이 크게 이른비를 받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처럼 제공하신 모든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 결핍이 늦은비로 보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가장 풍성한 은혜가 부여될 때 그것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겠다고 한다. 그들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과 지식을 주심으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하신 일은 계속 나아가야 한다. 각 사람은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마음은 모든 더러움을 비워 성령의 내주를 위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초대 제자들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준비했다. 지금 또한 같은 일이, 다만 더 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사람은 축복을 구하고, 주께서 자신과 관련된 일을 완전케 하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어 자신의 일을 마치실 것이다. 그러나 이른비가 상징하는 은혜를 소홀히 해서 안 된다. 자신이 받은 빛에 따라 살고 있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덕목을 삶으로 드러내는 데서 전진하지 않는다면, 늦은비 가운데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위 사람들의 마음 위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6, 507.

화이트 자매가 '오순절의 계절'이라 부르는 그 선상에서, '이른 비'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 하늘의 모임에서 내려오신 다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신 사건이었다. 이 맥락에서 '늦은 비'는 오순절이었다. 오순절의 계절의 알파에서는 몇 방울만이 제자들에게 내쉬어졌고, 오메가에서는 그 숨을 받은 제자들이 온 세계를 향해 불의 혀로 말하고 있었다. 시작과 끝에서 성령의 나타남이었다. 시작에는 신성이 메시지를 통해

성령을 인류에게 전달하였고, 끝에는 혀(인성)와 불(신성)로 표현되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메시지를 통해 성령을 인류에게 전달하였다. 시작의 보리 첫 열매 제물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응하고, 오순절 첫 열매 제물의 밀 두 덩이 떡은 오순절과 상응한다.

그 두 덩어리 떡은 누룩, 곧 죄의 상징을 포함한 유일한 제물이었다. 그 떡들은 구워져 죄의 제거를 나타냈지만, 동시에 14만4천을 대표하는 두 덩이 흔들어 드리는 떡이 말라기 3장의 언약의 사자에 의해 그 죄들에서 정결케 된, 원래 죄인이었던 남녀들이었음을 확증하였다. 그러므로 오순절 절기의 알파는 하늘의 떡이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나타냈고, 그 절기의 오메가는 그 동일한 제자들이 하늘로 들어 올려진 두 덩이 떡으로 상징되었다. 이와 같이 불의 혀들의 신성과 인성의 상징과, 제자들이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을 예표한 흔들어 드리는 제물을 들어 올리는 것이 결합되어, 14만4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대표하는 제물로 들어 올려져야 함을 밝혀 주며,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존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른 비를 받는 것"에 실패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함께 "베푸신" "모든 유익의" "부족함이" "늦은 비로 보충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끔찍한 실수"이다. 이른 비는 예레미야의 "옛 길들"이며, 9/11에 걸어가야 할 길로 확인되었다. 그것은 "끔찍한 실수"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늦은 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강한 미혹이며, 결국 그들의 메시지가 모래 위에 세워졌음을 알게 한다.

베드로는 늦은 비 기간에 14만 4천을 표상하는 자로서, 누가 술에 취해 있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직접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모든 선지자들은 마지막 날들에 대해 말하며, 요엘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깨어나, 늦은 비의 권능 아래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선포할 백성이라는 특권이 영원히 제거되었음을 보여 주는 분명한 증거와 맞닥뜨리게 됨을 지적한다. 14만 4천은 9/11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는 늦은 비 기간 동안 형성되고 인침을 받는다. 그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오순절의 베드로는 요엘서에 근거하여 늦은 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 역사에 걸쳐 오순절을 지킬 책임을 부여받았는데, 베드로는 이전의 모든 오순절이 앞날을 가리키며 예표하던 그 오순절이 이제 성취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로서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도주에 너무 취한 나머지, 요엘서의 맥락에서 늦은 비의 메시지를 전하는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술에 취했다고 비난했다. 요엘서 1장 5절에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깨어날" 때, 그들은 두 부류가 형성되는 늦은 비의 시험 과정에 직면한다. 그 시험 과정에서 한 부류는 늦은 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다른 부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늦은비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위에 내리는 은혜의 이슬과 단비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고 있다. 우리가 빛의 조각들을 거두어 모으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를 소중히 여길 때, 그때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땅이 그 싹을 돋아나게 하고, 동산이 그 가운데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이 모든 민족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사야 61:11.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재림교 성경주석 7권, 984쪽.

'recognize'한다는 것은 '기억을 되살리거나 지식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늦은 비의 기별을, 늦은 비의 역사를 예증하는 과거의 거룩한 역사들을 통해 기억을 되살려 다시 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오순절 때 베드로의 역사는 요엘이 제시한 역사적 구조 안에 놓여 있었다. 요엘의 배경과 베드로의 성취는 1844년 한밤중 외침의 역사에 대한 두 증인을 제공한다. 그 세 증인들(그리고 다른 증인들 또한)은 늦은 비의 역사, 배경, 그리고 기별의 예증으로서 'recognize'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셨을 때, 그것은 오순절의 큰 부어주심 이전의 "몇 방울"과 같았다. 처음과 끝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몇 방울은, 제자들에게서 세상으로 메시지가 부어지는 오메가로 끝나는 오순절 시기의 알파이다. 알파는 보리의 첫 열매 제물로 표시되며, 밀의 첫 열매 제물로 끝난다. 늦은비의 시작은 9/11에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진 사건으로 표시되었다. 이는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시작을 표시한다. 9/11은 보리의 첫 열매 제물로, 일요일 법령은 밀의 첫 열매 제물로 대표된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그들에게서 빼앗겨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 요엘은 여호와의 집에서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고 "새 포도주"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음을 지적함으로써 술 취한 자들의 불순종을 드러낸다. "새 포도주"는 히브리어로는 갓 짜낸 포도즙을 가리키지만, 5절에서 술 취한 자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발효된 포도즙이다. 두 종류의 포도주는 교리를 상징하며, 요엘의 문맥에서 그 교리는 늦은 비 기별이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발효된 포도즙을 마셔 왔고, 그들은 "새", 곧 갓 짜낸 포도즙과는 "끊어졌다". 두 종류의 포도주는 두 가지 늦은 비 기별을 나타내며, 술 취한 자들은 그 순수한 기별에서 "끊어졌다". "끊어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짐승을 쪼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고대 언약 관습에 근거한다. "끊어지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버림받는 것을 뜻한다.

요엘서는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을 밝히고 있는데, 1798년에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린 결과로 등장한 밀러파로부터 시작하여, 1989년에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린 결과로 등장한 14만 4천으로 끝맺는다. 처음에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엑서터 야영 집회에서 1844년 10월 22일의 실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으로 표상되었다. 그 역사는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를 성취했으며, 그 비유는 14만 4천의 역사에서 문자 그대로 반복된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는 또한 재림신자들의 경험을 예증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393.

"나는 종종 열 처녀의 비유를 주목하게 된다. 그중 다섯은 슬기로웠고, 다섯은 미련하였다. 이 비유는 글자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또 성취될 것이다. 이는 이 시대에 특별한 적용을 가지며,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성취되어 왔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여 현재 진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view and Herald, August 19, 1890.

세상은 악과 속임과 미혹 가운데, 사망의 깊은 그늘 속에 누워 잠들어 있다—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해 영혼의 산고를 겪는 이가 누구인가? 어떤 음성이 그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은 그 신호가 주어질 미래로 향한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그를 맞으러 나가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등불을 보충할 기름을 얻는 일을 지체하였고, 너무 늦게서야 그 기름이 상징하는 품성은 옮겨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을 나타내며, 품성은 옮겨줄 수 없다. 누구도 다른 이를 위해 그것을 확보해 줄 수 없다. 각 사람은 죄의 모든 오염에서 정결케 된 품성을 스스로 얻어야 한다. Bible Echo, 1896년 5월 4일.

누가 "악 속에 놓여 있는 세상"을 깨우기 위해 "영혼의 산고를 겪고" 있는가? 요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있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부르실 남은자들 가운데에서도 구원이 있으리라. 요엘 2:32.

이러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부활의 날 오후 늦게,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덟 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진실하게 믿는 신자들이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로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시신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아침 소식을 들었고, 천사를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여인들의 증언도 들었다. 이제 그들은 목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슬픈 마음으로 저녁길을 이어 가며 재판과 십자가 처형의 장면들을 이야기했다. 그토록 철저히 낙담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희망도 믿음도 잃은 채,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합류했지만, 그들은 침울함과 실망에 너무 사로잡혀 그를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 그들은 마음속 생각을 털어놓으며 대화를 계속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에 관해 따져 보았지만, 그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이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자 간절히 바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보셨고, 스스로 그토록 모욕을 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이가 과연 그리스도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만든, 서로 충돌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이해하셨다. 그들의 슬픔은 억누를 수 없었고,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자신과 굳게 묶여 있음을 아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 기쁨과 환희로 채워 주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그러나 먼저 그들에게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주셔야 했다.

'그분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며 서로 나누는 이 말들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클레오파인 이가 대답하여 그분께 아뢰되, 당신만이 예루살렘에 있는 나그네이시기에, 요즘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들은 그들의 선생에 관하여 품었던 실망을 그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실과 말씀에 능하신 선지자였으나;'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관원들이,' 그들은 말하기를,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실망으로 아픈 마음과 떨리는 입술로 그들은 덧붙였다. '우리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고 믿었나이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도 오늘로 사흘째가 되었나이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분이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도 처음 부분처럼 틀림없이 성취될 것, 곧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기억했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것을 잊지 않았다. 준비일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함께 나아가 말하였다. “각하, 그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 있을 때 말하기를,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7:62, 63.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때 그분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 마음이 더딘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제자들은 이 나그네가 누구이기에 그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고 이처럼 간절함과 온유함과 연민,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의아해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배신당하신 뒤 처음으로 그들은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주 그 동행인을 유심히 바라보며, 그의 말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고, 마음은 기쁜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성경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경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풀어 주셨다. 만일 그분이 먼저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셨더라면, 그들의 마음은 만족했을 것이다. 기쁨이 충만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구약의 예표와 예언이 그분을 가리켜 증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 위에 그들의 믿음이 세워져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먼저 성경을 설명하는 일을 하셨다. 그들은 그분의 죽음을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무너진 일로 여겼다. 이제 그분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바로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보여 주셨다.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증언하는 구약성경의 중요성을 보여 주셨다.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많은 이들이 구약성경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며 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분은 구약성경을 매우 높이 여기셔서 한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해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6:31.

아담의 시대부터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에 이르기까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주는 신약에서만이나 구약에서도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 예언적 과거에서 비추어 오는 빛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의 가르침을 분명하고 아름답게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기적들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지만, 그분이 세상의 구속주이심을 더 강력하게 보여 주는 증거는 구약의 예언들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할 때 드러난다.

예언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인간으로서 어떤 분이실지를 제자들에게 바르게 깨닫게 하셨다.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보좌와 왕권을 취할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그릇된 것이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을 오히려 깨닫는 데 방해가 될 터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이 모든 점에서 순전하고 참되기를 바라셨다. 그들은 그분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에 관하여 가능한 한 깊이 이해해야 했다. 그분은 그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 두려운 싸움이 세상이 기초 놓이기 전에 맺어진 언약의 성취임을 보여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범법자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문다면 마땅히 죽어야 하듯이, 죽으셔야 했다. 이 모든 일은 일어나겠지만, 그 결말은 패배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영원한 승리일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고, 그분이 하신 것처럼 치열하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일해야 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 제자들은 지쳐 있었지만 대화는 끊기지 않았다. 생명과 확신의 말씀이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다. 그분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은 멸망을 앞둔 그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동행이 누구인지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들은 대화의 주제가 바로 자기들 곁에서 함께 걷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분을 큰 절기에 참석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분은 그들처럼 거친 돌길을 조심스레 걸으시며, 이따금 그들과 함께 잠시 멈춰 쉬셨다. 이렇게 그들은 산길을 따라 걸어갔다. 곧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분,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들 곁을 걸으셨다. 마태복음 28:18.

여행하는 동안 해는 저물었고, 여행자들이 쉴 곳에 이르기도 전에 들에서 일하던 일꾼들은 일을 마치고 떠나 있었다. 제자들이 집에 막 들어가려 할 때, 그 낮선 이는 마치 길을 계속 가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들의 영혼은 그에게서 더 많은 말씀을 듣고자 갈급했다. '우리와 함께 머무르소서,' 그들이 말했다. 그는 초대에 응하는 듯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간청하며 말하였다. '저녁이 되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간청에 응하여 '그들과 함께 머무르려고 안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간곡히 머물러 달라고 청하지 않았더라면, 그들과 함께 길을 가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결코 누구에게도 억지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 가장 초라한 집에도 기꺼이 들어오셔서, 가장 낮은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늘의 손님을 생각하기에도 너무 무관심하여 그분께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청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냥 지나가신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큰 손실을 입는다. 그분이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실 때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빵으로 된 소박한 저녁 식사가 금세 준비되었다. 식탁 머리에 앉은 손님 앞에 그것이 놓였다. 이제 그는 손을 내밀어 음식 위에 축사하려 했다. 제자들은 놀라 뒷걸음질쳤다. 그들과 함께 있던 이가 그들의 스승이 늘 하시던 것과 똑같이 손을 펴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보니 그의 손에 못자국이 있었다. 둘 다 동시에 외쳤다. "주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려고 일어섰으나, 그분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무덤에 누워 있던 그분이 계시던 자리를 바라보고 서로 말하였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실 때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겁지 않았더냐?”

그러나 이 큰 소식을 전해야 하기에 그들은 잦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들의 피곤과 허기는 사라졌다. 그들은 식사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기쁨에 가득 차 즉시 자신들이 왔던 바로 그 길로 다시 떠나, 성 안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서두른다. 길 곳곳은 안전하지 않지만, 그들은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미끄러지면서도 가파른 곳을 넘어선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이 길을 걸으신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순례자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감히 낼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가고픈 마음에 계속 전진한다.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찾는다. 때로는 달리고, 때로는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며, 보이지 않는 동행자는 내내 가까이에서 그들과 함께한다.

밤은 어둡지만, 의의 태양이 그들 위에 빛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뛰어오른다. 그들은 마치 새 세상에 들어간 듯하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구주이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을 죽은 분으로 애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그들은 그것을 거듭 되풀이한다. 이것이 그들이 슬퍼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그들은 그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길에서 누가 그들과 동행하셨는지 말해 주어야 한다. 그들은 세상에 주어진 것 중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 메시지는 현세와 영원에 관한 인류 전체의 소망이 달려 있는 기쁜 소식이다. 시대의 소망, 795-801.